국립공원관리공단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친구와 함께 즐거운 에코트레킹		
해 설 주 제	국립공원 자유학기제 직업체험-녹색건축가		
해 설 재 료	국립공원 영상, 관련ppt, 체험활동 준비물품 등	소 요 시 간 (′)	12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일 정	시 간	프로그램	운영자	비고
3월~11월 중 운영	10:00~10:20	• 만나서 반갑습니다! – 서로 간 인사, 프로그램 일정 소개 – 지난 회 차 상기하기	김주승 외 1명	
	10:20~10:40	• 국립공원 건축가 – 친환경 녹색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술직 업무 알기 – 국립공원 건축가와의 만남	김주승 외 1명	
	10:40~11:00	• 국립공원 내 설치된 다양한 시설물 이용해보기 – 국립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알아보기 – 탐방경로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고 관리하기	김주승 외 1명	
	11:00~11:50	• 체험활동 – 미래의 국립공원(시설물) 표현하기	김주승 외 1명	
	11:50~12:00	• 소감나누기 • 프로그램 마무리 및 인사, 다음 차시 안내	김주승 외 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친구와 함께 즐거운 에코트레킹
주 제	국립공원 자유학기제 직업체험-녹색건축가 체험

해설 주제	장소	세부 시나리오
도입	내장산 국립공원 일원	▶ 서로 간 인사, 프로그램 일정 소개, 지난 차시 상기하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여러분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날씨도 점점 따듯해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쑥쑥 자라는 것 같은데요,(날씨이야기 등) 지난 시간에 어떤 직업을 체험했을까요? 네~ 그래요 동물과 식물을 조사하는 직업에 대하 알아보고 자원조사도 직접 해봤었죠? 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자원이 있나요? (질문과 답변) 그러면 오늘은 어떤 직업을 알아본다고 했을까요? 네~ 바로 국립공원에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녹색건축가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녹색건축가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녹색의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 숲속에 건축물을 짓는 사람?(질문과 답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립공원의 녹색건축가는 국립공원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오늘은 국립공원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체험	내장산 국립공원 일원	▶ 시설물? 시설물이라 함은 어떤 것들을 보고 시설물이라고 할까요? 한자로 하면 시설물(施設物) 베풀 시, 설치할 설을 써서 베풀기 위해 설치한 물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베풀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까요? 네~아무래도 사람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겠죠? 그러면 국립공원에는 어떤 시설물들이 있을까요? 탐방안내소나 대피소 같은 건물도 있겠죠?, 거리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도 있습니다. 중간 중간 설치된 화장실이나 음수대도 있고요, 탐방로에 있는 길이나 계단 등 국립공원에 설치된 인위적인 것들은 대부분이 국립공원의 녹색건축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물들은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다! OX로 대답을 해볼까요? 훼손이다 O, 훼손이 아니다 X 훼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 번 들어 보세요! 훼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학생은 왜 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등 질문과 답변) 알겠습니다. 일단 답은 이따가 다시 찾아보기로 하고요, 우선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시설물들 저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배려하는 시설물, 두 번째로 자연을 배려하는 시설물 이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먼저 이 많은 시설물 중에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들을 한 번 예기해 볼까요? 사진을 보면서 맞춰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계단, 이정표. 해설판, 탐방안내소, 음수대, 무장애탐방로, 주차장 등을 보여주며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ex : 휠체

		어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탐방로, 높이가 다른 음수대) 사람을 배려하는 시설물이 있는가 하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도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로드킬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 있나요? 네 그렇죠 달리는 차에 야생동물이 사고를 당하는 일을 로드킬인데요, 그런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통로를 만들기도 하고요, 무분별하게 오르내리는 길에 탐방로를 만들어 탐방로 이외의 공간은 자연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아까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다 O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X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전과는 좀 다르게 손을 든 것 같은데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여 케이블카를 만들어 훼손하기도 하고요, 아까 봤던 사진처럼 무분별하게 이용하던 자연을 복원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만들기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만들어진 시설물을 항상 유심히 지켜보며 유지관리 보수 까지가 녹색건축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에 있는 각 종 시설물과 녹색건축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많은 시설물들을 우리가 직접 이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물론 이용도 하고 유지관리 보수도 함께 해야겠지요? 저번에 나눴던 조별로 역할분담을 할건데요, 1조는 해설판을, 2조는 탐방로를, 3조는 나무로 된 시설물을, 4조는 건축물을 점검하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쓰레기 버리지 않기, 정해진 탐방로로만 이동하기, 부상이나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바로 얘기하기 잘 지켜줄 수 있지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설 장소가 네이처센터인 경우 : 서래봉 형상, 단풍터널 길, 멸종위기식물원, 습지데크, 조류관찰대 등을 돌며 시설물에 대한 설명과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해본다. - 해설 장소가 탐방안내소인 경우 : 탐방안내소, 삼청공원, 무장애탐방로, 자연사랑길 등을 돌며 시설물에 대한 설명과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해본다. 모두들 고생했습니다. 무심코 지나갔던 또는 이용했던 수많은 시설물들이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설치된 것임을 알고 나니 감사함이 막 샘솟지 않나요? 계속해서 조별 활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대표로 한명씩 나와서 준비물을 받아가세요.(종이, 각종 펜, 색종이, 풀, 가위, 나무조각키트 등 나눠주기)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국립공원에는 어떤 시설물들이 있을지 상상해서 그려볼 건데요, 최근에는 어떤 기술까지 접목이 됐냐면 VR이라고 들어봤어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산에 올라가지 않더라고 산 아래에서 VR을 통해 숲속을 볼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동물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서 동물과 일정부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계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진짜 많이 발전했죠? 제가 얘기한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미래의 국립공원에 어떤 시설물들이 생길지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도 나무조각키트나 색종이 등 여러 재료를 이용해서 꾸밀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 다 그렸나요? 그러면 1조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이 상상한 미래의 국립공원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조부터 나와서 발표해볼까요?(발표와 서로 의견나누기) 네~ 잘 들었습니다. 뭔가 정말 획기적인 것 도 있었고 모두가 평소에 꿈꾸던 모습을 표현한 조도 있었는데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말한 시설물들이 설치가능한 일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개발을 하는 것도 좋겠지요,
마무리	내장산 국립공원 일원	지금까지 국립공원 녹색건축가와 국립공원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사람이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자연을 훼손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원하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혹시 오늘 함께한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는 사람 있나요?(질문과 답변) 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았고요, 큰 사고 없이 오늘도 무사히 지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는 국립공원지킴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활동을 좀 많이 할 듯 하니 꼭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를 착용하고 오길 바라요! 그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차렷! 인사!